

환경부, 그간 공기 중 조류독소는 불검출되었으나 필요 시 공동조사 추진 검토

환경부(장관 김완섭)는 2월 3일 비강 내 조류독소가 검출되었다는 환경단체(환경운동연합, 낙동강네트워크 등)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구체적 내용을 분석한 후, 필요 시 공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.

그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(2022~2024년) 조사와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물환경학회(2023년 9월~ 2024년 3월)에 의뢰한 결과*, 공기 중 조류독소는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.

* [국립환경과학원] ('22년) 금강 1, 낙동강 3 ('23년) 금강 2, ('24년) 금강 7, 낙동강 10 (지점)
[한국물환경학회] ('23년) 금강 3, 낙동강 8 (지점)

환경부는 인체 비강 내 조류독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환경단체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민·관·학 합동으로 공동조사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.

참고로 세계보건기구(WHO)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물속 조류독소 권고기준(먹는물, 친수활동)은 설정되어 있으며, 세계보건기구는 먹는물에 대하여 1 μ g/L로 설정한 바 있다.

< 조류독소(MC) 권고기준 >

구 분	WHO	미국(EPA)	국내
먹는물	1 μ g/L	0.3 ~ 1.6 μ g/L	1 μ g/L
친수활동(수영 등)	24 μ g/L	8 μ g/L	관심 20,000, 경계 100,000세포/mL

다만 국제적으로 공기 중 또는 비강 내 조류독소와 관련한 공식적인 측정방법과 권고기준 등은 없는 상황이다. 끝.
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물환경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상진 (044-201-699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중 (044-201-7018)
	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	책임자	과 장	최희락 (032-560-7476)
		담당자	연구관	신유나 (032-560-7460)

